

시티투어버스 ‘교통약자 편의시설’ 외면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배려 장비 운영 인색 “수익성·예산 없어”...할인제도 도입 취지 무색

광주·전남지자체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 버스 등의 교통약자 배려시설 설치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티투어버스는 교통약자 할인 요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수익성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애인 탑승을 위한 슬로프·리프트 설치 및 저상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할인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와 목포, 여수 등을 포함해 총 10곳의 지역에서 시티투어버스 상품을 판매 중이다.

광주 시티투어버스는 테마형과 순환형이 운행되고 있다. 시관협력회와 금호고속이 30인승과 40인승 대형버스 총 4대로 위탁 운영 중이다. 요금 할인은 노인과 장애인 등에 한해 해당하며 순환형 코스만 적용된다. 50% 할인된 1코스(무등산권)는 4,500원, 2코스(전통문화체험)는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전남 목포는 투어버스 1대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운행된다. 투어버스는 45인승으로 장애인과 경로자는 할인 혜택으로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시티투어버스는 장애인 안전장비인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기본적인 리프트 시설이 전무하다.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버스에 탑승하지 못해 투어여행을 할 수 없다.

지자체가 교통약자 등에 할인 정책을 내놓고, 정작 탑승 배설 시설에 미온적은 것은 부족한 예산과 낮은 수익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와 도는 관광버스업체와 2~3년의 위탁계약을 맺고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당 6억원이 호가하는 저상버스 구매엔 소극적이다.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꺼리고, 위

탁업체 역시 수익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위탁운영업체가 수익원에 달하는 저상버스를 구입하더라도 추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A지자체 관계자는 “저상버스가 고가인 데다 구입을 하더라도 위탁업체와 소유권 문제로 복잡할 수 있고, 위탁업체에게 버스 구입을 권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B지자체 관계자도 “관광객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버스 증차가 우선적이다”면서 “저상버스는 좌석이 많지 않아 사실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티투어 장애인 탑승 편의 미제공을 차별행위로 간주했다.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

전하게 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김모씨(32)는 “장애인 혜택 이전에 안전권 보장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별로 편의 시설에 대한 차이를 보이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애인협회연대 관계자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놓지 않고, 지자체에서 할인제도를 마련한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시티투어 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0~20	흑산도	15~20
담양	11~21	구례	10~21
화순	11~21	곡성	10~20
영광	10~20	완도	15~21
함평	11~21	강진	13~22
무안	12~20	장흥	13~22
영암	12~22	해남	12~21
진도	13~20	고흥	13~21
신안	14~21	보성	11~21

일출 06:40 일몰 17:55
월출 20:51 월몰 10:30

목포	만조 04:28 17:06	여수	만조 11:31 23:27
	간조 09:38 22:10		간조 04:57 17:27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광주학생독립운동 발발 당시 뉴욕타임스서 3차례나 보도

전남대 김재기 교수 “세계적 사건 반증”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뉴욕타임스가 광주학생독립운동 발발 당시의 관련 기사를 3차례나 보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7월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에서 1929년 12월 26일자 ‘동경경찰 한국학생 180명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 등 모두 3건을 발굴해 17일 공개했다.

김 교수가 공개한 첫 기사는 “한국에서 발생한 학생시위는 공산주의 경향의 비밀결사가 주도한 정치적 사건으로, 1929년 12월 9일 900여명의 학생들이 체포됐다”며 “한국의 6개 지방 40여개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났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모든 사건이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후인 12월 28일자에서는 “도쿄 경찰은 한국 유학생과 노동자 100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한국인들로 구성된 도교에 있는 대학의 비밀단체”라고 언급했다.

1930년 2월 4일자에서는 “몇 주 동안 한국에서 광범위한 학생 시위가 보고됐지만, 시위는 격렬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조선

총독부가 판단한 한국의 정치적 불안은 공산주의자가 중심이 돼 일어났다. 많은 학생이 체포됐지만,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소수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축소·왜곡해 일부 소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사소한 일로 취급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김교수는 분석했다. 도쿄 주재 기사가 일본 정부가 의존한 간접취재를 하면서 드러낸 한계 탓에 광주나 서울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현장감 있게 담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발행된 포슈쉐 자이퉁의 1930년 2월 23일자 기사는 리차드 카츠 기사가 서울에서 직접 취재해 A4 4면 분량으로 자세하게 보도했다.

김재기 교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워싱턴포스트에 이어 뉴욕타임스까지 보도됐다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세계적인 운동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를 교과서에 수록하고, 화보집으로 제작해 전국 학교와 도서관에 배포하는 등 교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텃밭에 고구마가 한가득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마을 텃밭에서 매곡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유지원생들이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을 통해 기른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만취·무면허 뺑소니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검거

만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3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광산구 산정동 도로에서 무등록, 무보험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사고를 목격하던 다른 운전자와 행인 등에게 곧바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

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39%가 나왔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았고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나서 A씨를 출입국관리소에 넘길 예정이다. /윤영봉 기자

선배 약혼녀 살해 30대 무기징역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아)는 17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운정을 배운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부족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여친집서 명품가방 훔친 20대 딸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명품 가방을 훔친 20대가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남구 한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던 전 여자친구 집에서 꾸피와 디오르, 루이비통 등 1,0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개를 훔친 혐의다.

A씨는 피해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가방을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 400만원을 받아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종찬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